

|| 최신 유동화 콘크리트 ||

유동화 콘크리트의 배합 설계 및 시공

- Mixing Design and Execution of Fluidity Concrete -



윤기원*

1. 서언

금번 특집에서 다루는 유동화 콘크리트는 콘크리트로서의 품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치기 및 다짐 등의 시공성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주로 이용되며, 콘크리트 펌프에 의한 압송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효한 수단이고 단위수량 및 단위시멘트량을 절감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므로 온도 균열의 방지 및 콘크리트의 고품질화에도 유용하다. 또한, 유동화 콘크리트의 시공시에는 유동화 후 소요의 품질이 얻어지도록 사전에 베이스 콘크리트(base concrete)의 재료, 배합, 유동화 방법, 치기, 양생 및 품질 관리 방법 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유동화 콘크리트의 배합 설계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베이스 콘크리트의 배합, 유동화 방법 및 품질 관리 방법에 대하여 요약 정리하였다.

2. 유동화 콘크리트의 배합 설계

2.1 배합 설계 순서

최근 건설 공사 현장에서 적용이 증가하고 있는 유동화 콘크리트 시공은 레미콘 공장에서 베이스 콘크리트를 주문한 다음, 시공자 책임하에 현장에서 유동화제를 첨가하고, 유동화시켜 구조

체에 부어넣는 방법이 주로 채택되고 있다. 이 경우 레미콘 생산자는 베이스 콘크리트까지만 책임 범위로 한정됨에 따라 유동화 콘크리트 생산이라고 하여 특별히 고려하여야 하는 범위는 좁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효과적인 유동화 콘크리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동화 후의 품질을 고려하여 베이스 콘크리트를 제조하여야 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레미콘 생산과 다른 점이 있는데, 본 절에서는 일반적인 배합 설계 요령에 유동화 콘크리트에서 고려할 사항을 특별히 추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유동화 콘크리트의 배합 설계 흐름은 <그림 1>과 같다.

2.2 유동화 콘크리트의 배합 설계 방법

유동화 콘크리트의 배합 설계 방법은 보통 콘크리트의 배합 설계와 크게 다를 바가 없이 요구 성능의 결정, 배합 조건의 설정, 사용 재료의 선정, 계획 배합의 설정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유동화 콘크리트의 경우 배합 설계 단계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 계획 배합의 표시 방법이나 현장 배합의 결정 등은 일반 콘크리트와 동일하므로 생략한다.

2.2.1 요구 성능의 결정

즉, 유동화 콘크리트를 적용하고자 하는 구조물이나 부재의 용도, 규모, 구조 특성, 환경 조건 및 사용할 수 있는 재료의 품질, 적용할 수 있는 시공 방법, 기대할 수 있는 시공 관리의 정밀도,

* 정회원, 주성대학 건설재료공학과 조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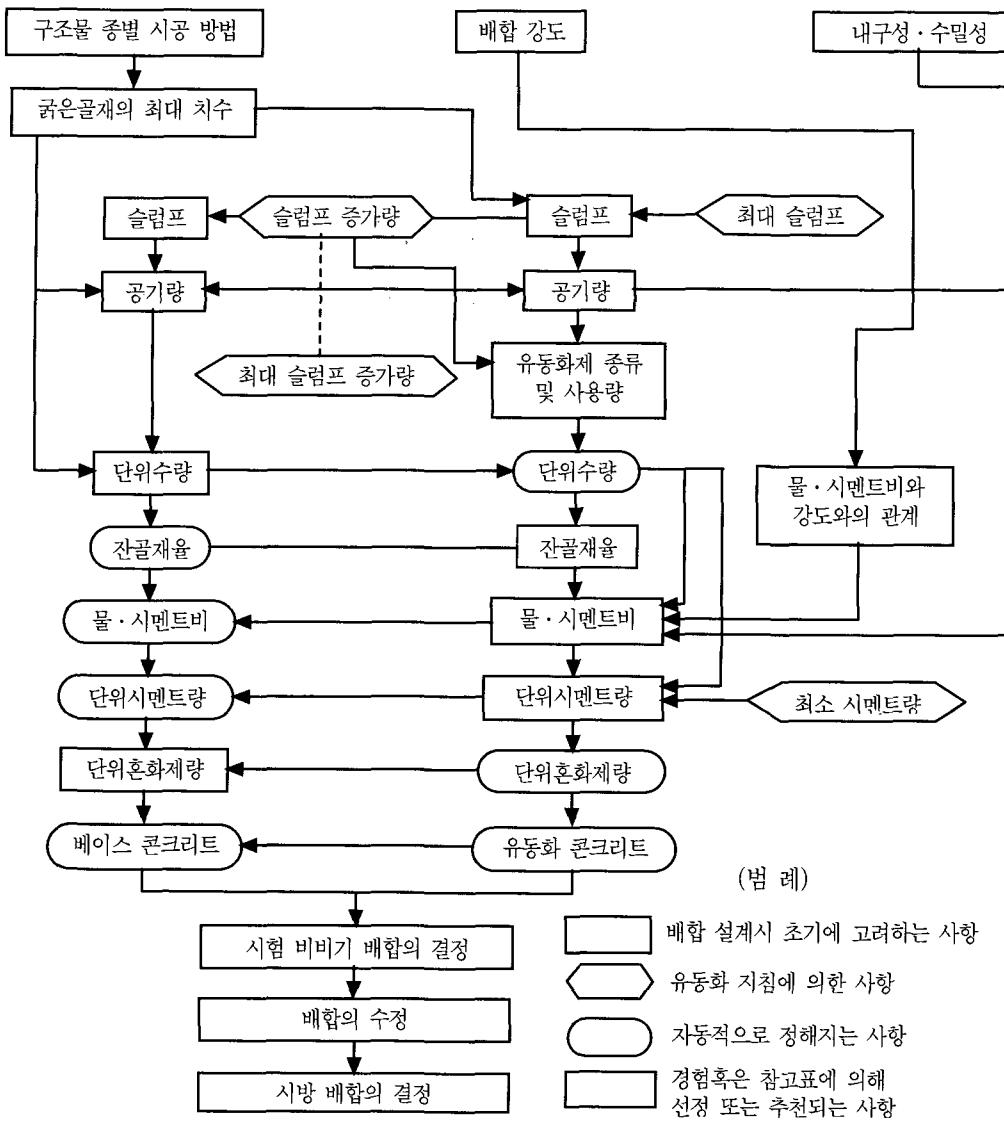


그림 1. 유동화 콘크리트의 배합 설계 흐름도

시공시의 예상되는 기상 조건,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공성, 강도 및 내구성 등의 요구 성능을 설정하게 된다. 특히 유동화 콘크리트 제조를 위한 베이스 콘크리트의 배합 설계는 유동화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유동화 정도 등을 정하게 된다.

2.2.2 배합 조건의 설정

유동화 콘크리트의 요구 성능이 결정되면 배합 강도, 슬럼프 및 공기량 등의 배합 조건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 외에도 경우에 따라 단위용적중량 및 온도 등이 추가되기도 한다. 한편,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나 토목공사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는 내구성 등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슬럼프, 물시멘트비, 단위시멘트량, 단위수량, 공기량, 염화물량에 대하여 규정치가 설정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이를 값으로 배합 조건으로 설정 또는 참고한다.

또한, 레미콘의 경우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 보고서의

서식을 염두에 둔 배합 설계 조건의 설정으로서 호칭 방식은 표준품·특주품의 구분과 골재 종류에 의한 구분이 있고, 지정 사항은 단위용적중량, 공기량, 콘크리트 온도, 혼화 재료의 종류, 호칭 강도를 보증하는 재령, 물시멘트비의 상한치, 단위시멘트량의 하한치 또는 상한치 및 유동화 콘크리트의 경우는 베이스 콘크리트에 대한 슬럼프 증대량이 포함된다.

2.2.3 사용 재료의 선정

배합 조건이 설정되면 재료를 선정(물론 실무에서는 이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임)하게 되는데, 먼저 시멘트 선정의 경우 유동화 콘크리트라고 하여 특별히 고려할 사항은 없으므로 보통 콘크리트의 시멘트 선정시 주의 사항을 고려하면 되며, 특수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자료나 시험에 의하여 유동화 콘크리트에 악영향이 없고 소요 성능이 얻어지는 것을 확인

하고 이용하면 된다.

유동화 콘크리트 측면에서 골재의 선정은 시멘트와 같이 특별히 고려할 사항은 없지만 단, 동일 조건의 보통 콘크리트와 비교할 때 유동화 후 시멘트 페이스트의 점성이 낮은 것과 베이스 콘크리트의 골재량이 많게 되는 것으로부터 워커빌리티 및 재료 분리의 관점에서 입도, 입형 및 굵은골재 최대 치수 등에 의한 영향이 크게 나타나므로 이점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 예로 부순돌에서 입형이 불량한 경우, 즉, 입도 분포 중 중간 입자 부분이나 작은 입자 부분이 적은 경우에는 유동화 후의 워커빌리티가 아주 나빠지고, 잔골재의 미립분(0.3 mm 이하 또는 0.15 mm 이하)이 적게 되면 유동화에 따라 점성이 부족하여 분리하기도 쉽게 되며 블리딩도 많게 된다. 특히 미립분이 적은 해사나 습식제법으로 제조된 미립분이 적은 부순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특히 이 경향이 크게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플라이 애쉬 등을 혼화하여 콘크리트 중에 점하는 0.3 mm 이하의 입자량(시멘트 포함)을 $400 \sim 450 \text{ kg/m}^3$ 정도로 하면 좋아질 수 있다.

혼화 재료로서 특히, 유동화 콘크리트의 경우는 유동화제가 된 비빔의 콘크리트를 유동성 크게 만드는 주 요인으로서 혼화제의 성분, 형태뿐만 아니라 혼화제의 첨가량, 첨가 순서, 비빔 시간, 첨가 시기 및 온도 등에 영향이 크고, 시멘트의 종류, 단위시멘트량 등과도 영향이 크므로 효과적인 선택을 위해서는 각 시공 조건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동화 콘크리트의 경우 물에 관한 특별한 고려 사항은 없다. 단, 회수 수중 슬러지수를 이용할 경우는 그 중 고형분이 유동화제의 유동화 효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데 규정에 따른 사용량 범위 내에서는 실용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2.4 계획 배합의 설정 및 결정

계획 배합의 설정 및 결정은 요구 성능의 설정으로부터 배합 조건의 설정 및 재료의 선정을 거쳐 배합 조건으로 필요한 물시멘트비, 굵은골재 최대 치수 및 슬럼프, 단위수량, 잔골재율(혹은 단위 굵은골재 용적) 및 혼화제의 양을 설정한 다음, 시험 비빔을 거쳐 확정된 계획 배합을 결정하는 과정으로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물시멘트비의 결정

물시멘트비는 물과 시멘트의 중량 백분율로 물시멘트비의 최대 영향 인자는 압축 강도이고, 내구성, 수밀성 등과도 연관되어, 물시멘트비 규정도 있는데, 유동화 콘크리트의 경우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르면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 포줄란 시멘트 A종, 플라이 애쉬 시멘트 A종을 사용하는 경우 65 %를 최대로 하며 고로 슬래그 시멘트 1급, 포틀

랜드 포줄란 시멘트 B종, 플라이 애쉬 시멘트 B종의 경우는 60 %를 상한치로 규정하고 있으나, 토목공사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는 이와 연관한 규정치는 없다.

(2)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슬럼프의 결정

굵은골재의 최대 치수는 유동화 콘크리트라고 하여 특별히 고려될 사항은 없고, 일반적인 콘크리트와 마찬가지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혹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슬럼프치의 규정으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는 보통 콘크리트의 경우 베이스 콘크리트의 슬럼프를 15 cm, 유동화 후의 슬럼프치를 21 cm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며, 경량 콘크리트의 경우 베이스는 18 cm, 유동화 후의 슬럼프는 21 cm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단, 토목공사의 콘크리트 배합 설계인 경우에서, 먼저 굵은골재의 최대 치수는 콘크리트를 경제적으로 제조한다는 관점에서 될 수 있는 대로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복잡한 철근 배근 등에 대한 충전성 향상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단위수량의 결정

단위수량의 최대 영향 요인은 내구성, 수밀성 외에 슬럼프 등 유동성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 단위수량에 관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및 토목공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규정은 요구하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얻어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작게 시험 비빔에 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유동화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은 베이스 콘크리트에서 제한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만 185 kg/m^3 로 보통 콘크리트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유동화 후 시멘트 페이스트의 현저한 점성 저하 및 블리딩의 증가 등을 고려하면 더욱 낮게 정할 필요가 있다.

(4) 잔골재율의 결정(단위 굵은골재량의 결정)

잔골재율의 최대 영향 인자는 재료 분리에 따른 점성 문제와 경제성 배합에 관계한다. 일반적으로 잔골재율을 증가시키면 점성의 증가로 슬럼프가 저하하여 단위수량을 증가시켜야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단위시멘트량도 따라서 증가되어 결국 비경제적인 배합이 된다. 그러므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및 토목공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규정은 요구하는 콘크리트 품질이 얻어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토목의 경우는 단위수량이 최소가 되도록) 시험 비빔으로 가능한 한 작게 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단, 유동화 콘크리트의 경우 잔골재율 결정시에는 베이스 콘크리트에서 적당한 잔골재율보다는 유동화시킨 후의 상태에서 적합한 잔골재율이 선정되어야만 바람직한 콘크리트 배합이 되는 점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참고적으로 일본건축학회의 콘크리트 배합 설계 지침·동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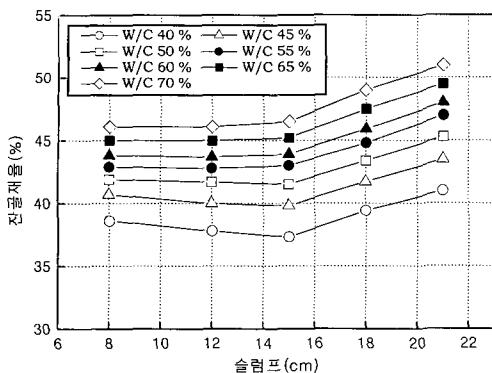


그림 2 보통 콘크리트의 잔골재율(강자갈 25 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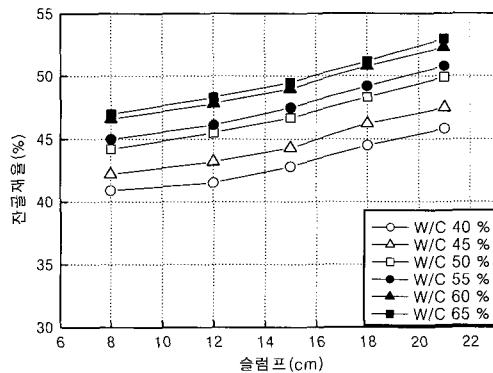


그림 3. 보통 콘크리트의 잔골재율(부순돌 20 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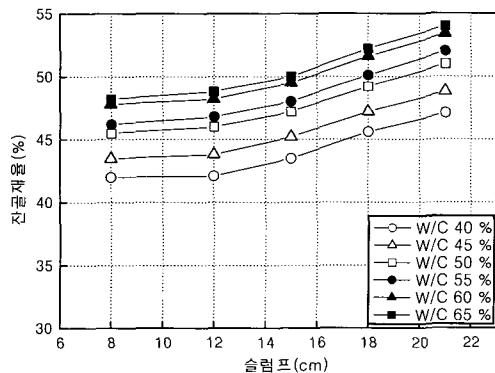


그림 4. 경량 콘크리트 1종의 잔골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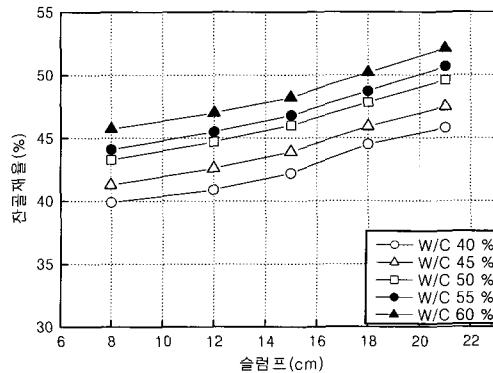


그림 5. 경량 콘크리트 2종의 잔골재율

에 따르면 슬럼프치에 따른 잔골재율을 〈그림 2〉~〈그림 5〉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 천연 골재에 비하여 부순돌 및 경량 콘크리트의 경우 베이스 콘크리트보다 유동화한 콘크리트는 잔골재율은 더욱 큰 값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즉, 유동화 콘크리트의 경우, 베이스 콘크리트 상태에서 이와 같은 차이만큼 잔골재율을 큰 값으로 상향 조정하여 제조하지 않으면 유동화제로 유동화한 콘크리트는 〈사진 1〉과 같이 커다란 재료 분리를 일으키게 되어 품질이 열악해진다.

유동화 콘크리트의 경우 유동화 후 재료 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베이스 콘크리트의 잔골재율은 될 수 있으면 크게 상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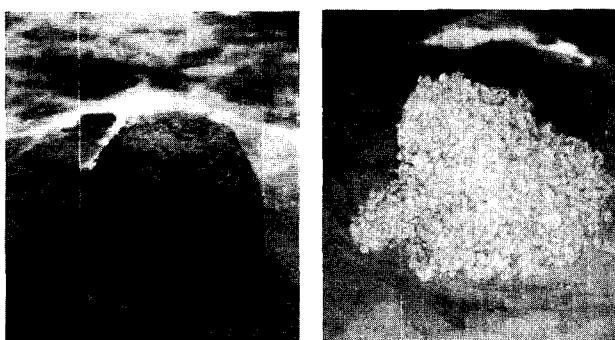


사진 1. 유동화 후 잔골재율 부족에 의한 재료 분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경제성까지도 고려한다면 강자갈의 경우 약 3~4% 정도, 부순자갈의 경우 약 4~5% 정도 상향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5) 혼화제량의 결정

내동해성 향상을 위하여는 AE제의 사용이 불가피하고, 단위수량 감소, 유동성 증진 및 경제성 목적상 감수제 및 유동화제의 사용도 검토되는데, 복합적인 효과로는 AE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 고유동화제 등도 이용된다.

유동화 콘크리트의 경우, 베이스 콘크리트에 이용되는 AE제, AE 감수제 및 고성능 AE 감수제의 사용량은 소정의 슬럼프 및 공기량이 얻어지도록 하는데 특히 AE 공기량의 경우 유동화 전후에 크게 변화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동화제의 첨가량은 베이스 콘크리트의 슬럼프와 목표로 하는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에 따라 유동화 전후에 소요의 워커빌리티 및 슬럼프치가 얻어지도록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시험 비법에 의하여 정하면 된다. 또한 상기의 AE제류, 유동화제 이외의 혼화 재료 사용량은 콘크리트의 소정 성능이 얻어지도록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시험 비법에 의하여 정하게 되는데, 특히 시멘트 및 글재의 종류, 콘크리트의 배합 조건, 온도, 운반 시간 등에 따라서 다르므로 이 모두를 고려하여야 하고, 특히 과잉 사용은 콘크리트의 응결 지연, 강도 저하 등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지 충분히 주의하며, 경제성 면으로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유동화 콘크리트의 제조 및 시공

3.1 유동화 콘크리트의 시공 계획

3.1.1 설계도서의 사전 검토

콘크리트 공사의 시공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전에 설계도

서 및 시방서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방서에 의한 지시 사항과 특기 사항, 그 외 관련 행정기관의 지침 등에 따라 콘크리트의 소요의 품질을 명확히 하고,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및 타설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다. 시공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해서는 설계자 및 공사 감리자와 잘 협의하여 설계 또는 콘크리트의 시방을 변경받을 필요가 있다.

3.1.2 시공 계획

설계도서의 사전 검토에 의해 명확해진 요구 성능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공 계획은 공사 전체의 공정 계획을 검토하면서 안전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유동화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묵은비빔 콘크리트에 비하여 경과 시간에 따른 슬럼프 손실이 크며, 워커빌리티가 다르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 계획을 세우고 보다 면밀한 시공 계획 및 품질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유동화 공법 적용시에는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 중대량, 유동화제의 종류 유동화 장소, 유동화제의 최적 첨가량, 유동화제의 계량·투입 방법, 교반 장소, 교반 조건(소음 대책), 유동화 후의 품질 검사 등에 유의하여야 하며, 품질 관리 및 검사와 관련하여 베이스 콘크리트의 제조 관리 사항, 베이스 콘크리트의 반입 검사, 베이스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타설 직전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등에 대하여도 미리 계획하여야 한다.

3.2 레미콘 공장의 선정 및 발주

유동화 콘크리트를 시공하기 위한 레미콘 공장의 선정은 일반적인 콘크리트의 레미콘 공장 선정시 고려 사항인 KS 인증 공장 인지, 기술자의 상주 여부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① 공장은 소정 품질의 콘크리트를 제조할 제조 설비 및 품질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 ② 공장은 소정 품질의 유동화 콘크리트가 얻어지는 한도 내에서 운반 혹은 유동화가 될 수 있는 거리일 것

또한, 유동화 콘크리트에서 레미콘의 발주는 일반 레미콘의 발주시에 포함되는 사항, 즉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3〈종류〉에 필요한 사항 외에도 다음 ① ~ ③을 포함하여 발주한다.

- ① 베이스 콘크리트를 KS F 4009에 의한 레미콘으로 발주하는 경우는 KS F 4009의 『3(종류)의 표 1』에 정한 것으로 하고, 슬럼프 및 슬럼프 증대량 외에 필요한 지정 사항을 정하여 발주한다.
- ② 베이스 콘크리트를 KS F 4009에 의하지 않는 레미콘으로

발주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의 소요 품질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즉 호칭 강도 및 보증 재령, 슬럼프, 공기량, 단위용적중량 등을 일반 콘크리트에 준하며, 베이스 콘크리트의 검사 방법과 레미콘 공장에서 유동화제를 계량 첨가하는 경우 유동화제의 종류 및 첨가량과 계량 및 첨가 방법 등에 대하여 공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 ③ 레미콘 공장에서 유동화 콘크리트를 발주할 경우는 콘크리트의 소요 품질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KS F 4009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 짐부리기 지점에 있어서 유동화 콘크리트의 호칭 강도 및 보증 재령, 베이스 콘크리트의 슬럼프 및 짐부리기 지점에 있어서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와 공기량, 경량 콘크리트의 경우 유동화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 베이스 콘크리트의 시방 배합, 유동화제의 종류, 첨가량과 유동화 방법 및 품질 관리 방법과 검사 방법 등에 대하여 지정한다.

3.3 베이스 콘크리트의 제조

베이스 콘크리트의 경우 배치 플랜트에서 실시되는 사용 재료의 계량은 정확도와 신속도에 목표를 두고 실시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계량시의 요점은 일반 콘크리트와 동일하다.

베이스 콘크리트의 혼합은 일반 콘크리트와 동일하게 배치 플랜트의 믹서로 실시하며, 비비기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요점은 일반 콘크리트와 같다.

3.4 운반

유동화 콘크리트의 경우 베이스 콘크리트를 레미콘 공장에서부터 공사 현장까지의 운반 시간 한도는 소요 품질의 유동화 콘크리트가 얻어지는 시간 한도 내로 함과 동시에 일반 레미콘에서 정한 규정 시간 범위 내에서 짐부리기를 완료할 수 있는 시간의 한도로 한다.

즉, KS F 4009의 경우는 90분 이내, 건축 및 토목시방서의 경우는 기온이 25 °C 미만일 경우 120분, 25 °C 이상일 때 90분 이내이다. 단, 현장 도착 후 유동화 개시로부터 부어넣기 완료까지의 시간은 25 °C 미만일 때 30분, 25 °C 이상 20분 이내가 바람직한데, 물론 이 시간도 전체 시간에 포함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유동화를 위한 교반에 에지테이터 트럭을 사용하는 경우 콘크리트 적재량은 에지테이터 트럭의 교반 성능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는데 최대 용량보다 적어질수록 혼합 효과는 좋다.

3.5 유동화 방법

미리 비벼진 된비빔 혹은 비교적 된비빔의 콘크리트에 유동화

제를 첨가하여 유동성을 일시적으로 증대시키는 방법에는 크게 3 가지로 구분된다. 즉, 유동화 콘크리트의 제조 방식은 다음 (1)~(3)을 표준으로 한다.

(1) 베이스 콘크리트의 제조를 레미콘에 의하여 행하고 시공자가 유동화시킨다. 이 경우 유동화 책임은 시공자에 있게 되는데 유동화제의 첨가 및 교반은 다음 ①~③(〈표 1〉 참조)의 어느 방법인가를 택한다.

- ① 시공 현장에 운반된 베이스 콘크리트에 유동화제를 첨가하고, 교반하여 유동화(가장 많이 채택)
- ② 공장에서 베이스 콘크리트에 유동화제를 첨가하고 공사 현장까지 운반한 후 현장에서 교반하여 유동화
- ③ 레미콘 공장에서 베이스 콘크리트에 유동화제를 첨가하고 공장에서 교반하고 유동화시킨 다음 현장으로 운반(운반 거리가 짧은 경우)

(2) 유동화 콘크리트의 제조를 레미콘에 의한다. 구미 지역에서 많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유동화의 책임은 레미콘에 있게 되는데, 유동화제의 첨가 및 유동화를 위한 교반은 상기 (1)의 ①~③으로 한다.

(3) 베이스 콘크리트를 공사 현장 비빔 콘크리트로 제조하고 공사 현장에서 유동화시킨다. 이 경우는 대단위 주택 건설 공사, 원자력발전소 공사 등 대규모 공사의 경우에 채택되는 방식으로 베이스 콘크리트의 제조로부터 유동화까지의 모든 책임은 시공자 측에 있게 된다. 유동화제의 첨가 및 유동화를 위한 교반 방법은 공사 현장의 조건에 따라 상기 (1)의 ①~③을 참조하여 적절히

정한다.

유동화를 위한 교반은 에지테이터 트럭 혹은 교반 장치로부터 배출되는 유동화 콘크리트의 약 1/4과 3/4 위치로부터 시료를 채취하여 슬럼프 시험을 행한 경우, 양자의 슬럼프 차가 3 cm 이내가 될 때까지 실시해야 한다. 즉, 국내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그림 6〉과 같이 전중후 차이가 없어지는 총 32회의 회전수, 즉 고속으로 2~3분, 중속으로 3~5분만큼 충분히 혼합한 경우 〈그림 7〉과 같이 전과 후간의 공기량 차이가 작아지며, 압축 강도도 〈그림 8〉과 같이 전후간의 차이가 없어지고 전반적으로는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배출 전후의 슬럼프 차이가 최소가 되도록 혼합하여 주어야 할 것으로 연구되었는데 이는 일본의 경우보다 약간 긴 것으로 이는 레미콘의 용량 차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시가지 공사에서는 유동화시 발생하는 소음 공해에 대하여도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한천구 등의 연구에 의하면 국내의 경우 유동화시 발생하는 소음은 유동화시 에지테이터 트럭의 분당 회전수(rpm)별 거리에 따라 〈그림 9〉와 같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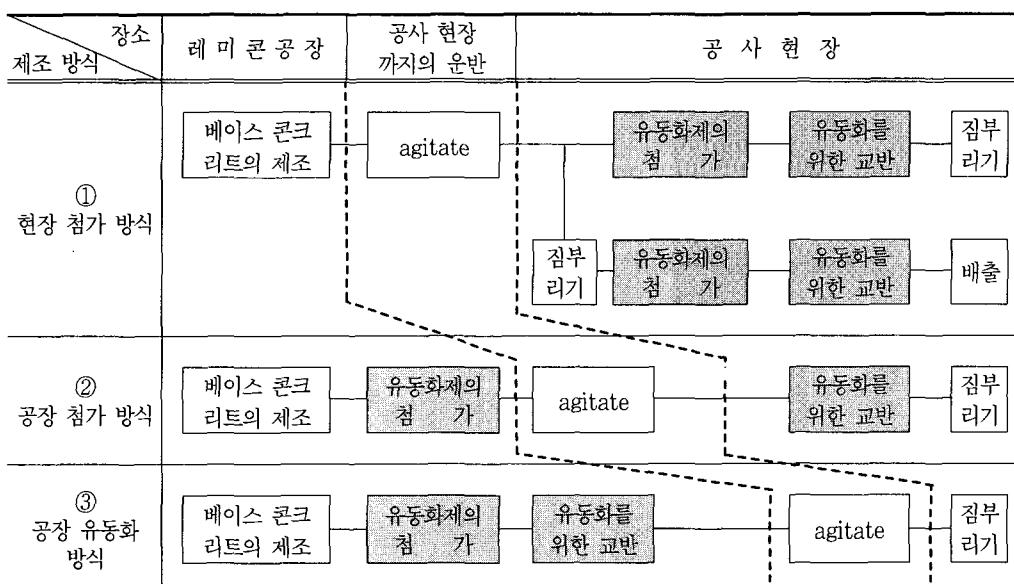
이러한 결과를 KS A 1626 규정의 생활 소음 규제 기준의 범위와 비교하여 볼 때 생활 소음 규제 기준에 만족하는 유동화 공법 적용시 주거, 녹색, 취락, 관광·휴양 지역에서는 주간에서는 50 m 이상, 조석에는 75m 이상, 심야에는 100m 이상의 이격 거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업, 준공업, 취락 지역 중 주거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주간의 경우에는 30 m 이상, 아침저녁으로는 50 m 이상, 심야에는 100 m 이상의 이격 거리를 필요로 하며, 12 rpm을 초과하는 고속으로의 교반이나 거리의 이격이 불가능한 지역에서의 현장 유동화 공법 적용시에는 흡음 성능이 있는 차음 시설 등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

리의 실정에 알맞은 현장 유동화는 교반 속도를 떨 수 있으며 낮추고 교반 시간을 길게 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하였다.

3.6 유동화제의 계량 및 취급

유동화제의 취급은 원액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첨가는 미리 정한 량을 한 번에 첨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유동화제의 1회 계량분은 1회에 유동화할 콘크리트의 용적 (m^3)에 $1 m^3$ 당 유동화제 첨가량을 곱하여 정하고, 중량 또는 용적으로 계량하며, 그

표 1. 유동화 콘크리트의 제조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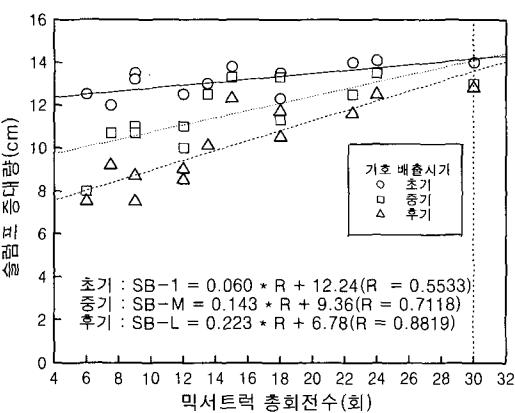


그림 6. 에지테이터 트럭 총 회전수와 슬럼프 증대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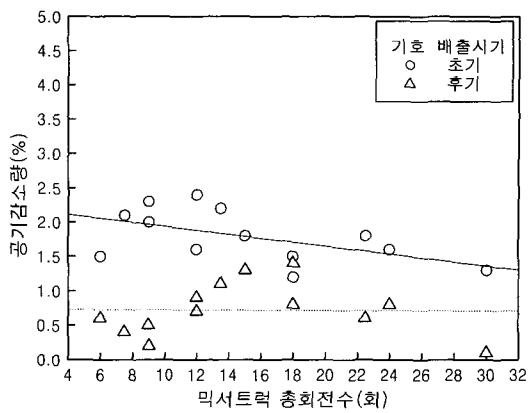


그림 7. 에지테이터 트럭 총 회전수와 공기 감소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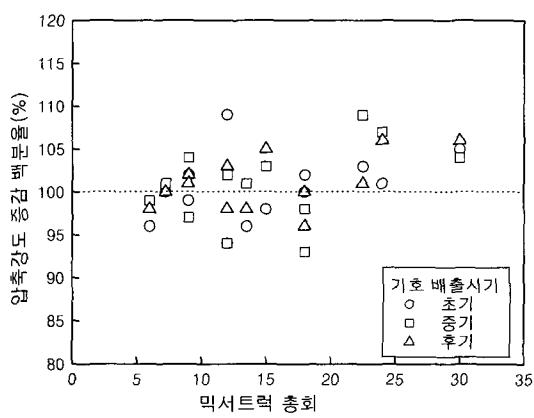


그림 8. 에지테이터 트럭 총 회전수와 압축 강도 증감 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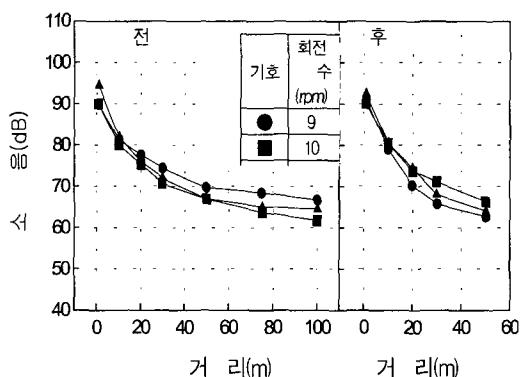


그림 9. 거리에 따른 소음의 변화

오자는 1회 계량 분량의 3% 이내로 한다. 계량 장치는 소요의 계량 정밀도를 갖는 것으로 하고 정기적으로 검교정 받는 것은 물론 유동화제는 납품될 때 이름 및 종류를 확인하고, 품질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한다.

3.7 부어넣기, 다짐 및 표면 마무리

유동화 콘크리트의 경우 펌프에 의한 부어넣기시에는 유동성이 매우 크므로 거푸집의 설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틈새도 점성이 적은 페이스트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수밀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유동화 콘크리트의 경우 슬럼프 로스가 심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어붓기 시간을 고려하고, 보통 콘크리트보다 침하가 클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부어넣는다.

다짐의 경우는 유동화 콘크리트의 경우 충전성이 뛰어나므로 일반 콘크리트보다는 적게 해주어도 된다. 일반 콘크리트와 유사한 다짐을 할 경우 오히려 블리딩의 증가 및 굵은골재의 침강 등으로 콘크리트의 품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외에도 표면 마감이나 양생 및 거푸집 제거 등은 일반 콘크리트와 동일하게 실시하여도 된다.

4. 유동화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 및 검사

4.1 베이스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 및 검사

베이스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 및 검사는 원칙적으로 유동화제의 첨가장소에서 유동화제를 첨가하기 전에 행한다. 이 경우 시료 채취 방법은 에지테이터 트럭을 약 30 rpm 정도로 속도를 높여 교반한 다음 배출시 키게 되는데, 처음의 약 50 l 정도를 제거한 다음 콘크리트의 흘러내림 전 횡단면에서부터 채취 한다.

품질 관리 및 검사 방법으로, 베이스 콘크리트를 레미콘 공장에 발주하고 시공자가 유동화를 행할 경우와 유동화 콘크리

트를 레미콘 공장에 발주할 경우 및 시공자가 현장에서 베이스 콘크리트 제조 및 유동화시킬 경우 등으로 구분되나 시험 방법, 판정 기준 등 원칙에는 큰 차이가 없다. 베이스 콘크리트를 발주하는 경우와 유동화 콘크리트를 발주하는 경우의 품질 관리 및 검사는 <표 2> 및 <표 3>에 나타내었는데, 시험 시기 및 횟수에 있어 굳지 않은 상태의 슬럼프 및 공기량 등의 품질 검사 시기는 베이스 콘크리트를 발주하는 경우 압축 강도 혹은 구조체 강도 관리용 공시체 제작시 실시하나 유동화 콘크리트를 발주 혹은 시공자가 직접 제조할 경우는 부어넣기 공구마다, 부어넣는 날마다, 150 m³ 또는 그 단수마다 1회로 약간의 차이는 있다.

4.2 유동화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 및 검사

베이스 콘크리트를 유동화시킨 유동화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 및 검사는 공사 현장의 짐부리기 지점에서 행한다. 이 경우 시료 채취 방법은 베이스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 및 검사의 요령과 동일한데, <표 4> 및 <표 5>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품질 관리 및 검사 방법으로 베이스 콘크리트를 레미콘 공장에 발주하고, 시공자가 유동화를 행할 경우와 유동화 콘크리트를 레미콘 공장

표 2. 베이스 콘크리트를 발주하는 경우 베이스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 및 검사

항 목	시 험 방 법	시기 및 횟수	판정 기준
워커빌리티 및 균일성	육 안 관찰	처음 부어넣을 시 및 중간에 수시	워커빌리티가 좋을 것과 품질이 균일하고 안정되어 있을 것
슬 럼 프	KS F 2404	1) 압축 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시 2)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 검사용 공시체 채취시 3) 콘크리트의 품질에 변화가 느껴질 때	슬럼프의 허용차(cm) 지정 슬럼프 8 미만 ± 1.5 8 이상 18 이하 ± 2.5
공 기 량	KS F 2409 KS F 2421 KS F 2440		공기량 허용차(%) 구 분 보통 콘크리트 ± 1.5 경량 콘크리트 ± 1.5
경량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	KS F 2409		± 3.5% (KASS 5.15.8 참조)
압 축 강 도	KS F 2405 단, 양생은 표준 양생으로하고, 재령은 28일로 한다.	부어넣기 공구마다, 부어넣는 날마다, 동시에 150m ³ 마다 또는 그 단수마다 1회, 1검사로드에 3회(1회의 시험에는 3개의 공시체를 이용한다)	1) KS F 4009에 의한 레미콘의 경우 ① 1회 시험 결과는 지정한 호칭 강도의 85% 이상 ② 3회 시험 결과의 평균치는 호칭 강도 이상 2) KS F 4009에 의하지 않는 레미콘 및 현장 비빔 콘크리트의 경우는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른다.
단 위 수 량	배합표 및 콘크리트 제조 관리 기록에 의한 확인	1) 처음 부어넣을 시 2) 부어넣기 도중에 품질 변화가 감지되었을 때	규정한 값 이하일 것
염 화 물 량	KASS 5T-501 또는 KASS 5T-502	1) 해사등 염화물을 함유할 위험성이 있는 꿀재를 이용할 경우에는 처음 부어넣을 때 및 150m ³ 에 1회 이상 2) 기타의 경우 1일에 1회 이상	규정한 값 이하일 것
알카리량	재료의 시험 성적서 및 배합표, 콘크리트의 제조 관리 기록에 의한 확인	부어넣기 공구마다, 부어넣는 날마다 1회 이상	$R_t = (R_2O/100) \times C + 0.9 \times Cl^- + R_m$(1) (1)에서 계산한 경우 3.0 kg/m ³ 이하 $R_t = (R_2O/100) \times C$(2) (2)에서 계산한 경우 2.5 kg/m ³ 이하

주 : 여기서 R_t 는 콘크리트 중의 알카리 총량(kg/m³), R_2O 는 시멘트 중의 알카리량(%), C는 단위시멘트량(kg/m³), Cl^- 는 콘크리트 중의 염소 이온 총량 (kg/m³), R_m 은 혼화제 중의 알카리 총량(kg/m³)을 의미함.

표 3. 유동화 콘크리트를 발주할 경우 베이스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 및 검사

항 목	시 험 방 법	시기 및 횟수	판정 기준
워커빌리티 및 균일성	육 안 관찰	처음 부어넣을 시 및 중간에 수시	워커빌리티가 좋을 것과 품질이 균일하고 안정되어 있을 것
슬 럼 프	KS F 2402	1) 부어넣기 공구마다, 부어넣는 날마다, 동시에 150m ³ 또는 그 단수마다 1회 2) 유동화 콘크리트의 품질에 변화가 감지되었을 때	슬럼프의 허용차(cm) 지정한 슬럼프 8 미만 ± 1.5 8 이상 18 이하 ± 2.5

표 4. 베이스 콘크리트를 발주할 경우 유동화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 및 검사

항 목	시 험 방 법	시기 및 횟수	판정 기준
워커빌리티 및 균일성	육 안 관찰	처음 부어넣을 시 및 중간에 수시	워커빌리티가 좋을 것과 품질이 균일하고 안정되어 있을 것
슬 럼 프	KS F 2402	1) 부어넣기 공구마다, 부어넣는 날마다, 동시에 150m ³ 또는 그 단수마다 1회 2) 유동화 콘크리트의 품질에 변화가 감지되었을 때	슬럼프의 허용차(cm) 슬 럼 프 18 이하 ± 2.5 18 초과 ± 3
공 기 량	KS F 2409 KS F 2421 KS F 2440	2) 유동화 콘크리트의 품질에 변화가 감지되었을 때	공기량의 허용차(%) 구 분 보통 콘크리트 ± 1.5 경량 콘크리트 ± 1.5

표 5. 유동화 콘크리트를 발주할 경우 유동화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 및 검사

항 목	시험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 기준	
워커빌리티 및 균일성	육안 관찰	처음 부어넣을 시 및 중간에 수시	워커빌리티가 좋을 것과 품질이 균일하고 안정되어 있을 것	
슬럼프	KS F 2404	1) 압축 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시 2)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검사용 공시체 채취시 3) 콘크리트의 품질에 변화가 느껴질 때	슬럼프의 허용차(cm) 18 이하 18 초과	슬럼프 허용차 ±2.5 ±3
공기량	KS F 2409 KS F 2421 KS F 2440		공기량 허용차(%) 보통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구분 허용차 ±1.5 ±1.5
경량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	KS F 2409			± 3.5% (KASS 5.15.8 참조)
압축강도	KS F 2405 단, 양생은 표준 양생으로하고, 재령은 28일로 한다.	부어넣기 공구마다, 부어넣는 날마다, 동시에 150m ³ 마다 또는 그 단수마다 1회, 1검사로드에 3회(1회의 시험에는 3개의 공시체를 이용 한다)	1) KS F 4009에 의한 레미콘의 경우 ① 1회 시험 결과는 지정한 호칭 강도의 85% 이상 ② 3회 시험 결과의 평균치는 호칭 강도 이상 2) KS F 4009에 의하지 않는 레미콘 및 현장 비빔 콘크리트의 경우는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른다	
단위수량	배합표 및 콘크리트 제조 관리 기록에 의한 확인	1) 처음 부어넣을 시 2) 부어넣기 도중에 품질 변화가 감지되었을 때	규정한 값 이하일 것	
염화물량	KASS 5T-501 또는 KASS 5T-502	1) 해사등 염화물을 함유할 위험성이 있는 골재를 이용할 경우에는 처음 부어넣을 때 및 150m ³ 에 1회 이상 2) 기타의 경우 1일에 1회 이상	규정한 값 이하일 것	
알카리량	재료의 시험 성적서 및 배합표, 콘크리트의 제조 관리 기록에 의한 확인	부어넣기 공구마다, 부어넣는 날마다 1회 이상	$R_t = (R_2O/100) \times C + 0.9 \times Cl^- + R_m$(1) (1)에서 계산한 경우 3.0 kg/m ³ 이하 $R_t = (R_2O/100) \times C$(2) (2)에서 계산한 경우 2.5 kg/m ³ 이하	

주 : 여기서 R_t 는 콘크리트 중의 알카리총량(kg/m³), R_2O 는 시멘트 중 알카리량(%), C는 단위시멘트량(kg/m³), Cl^- 는 콘크리트 중의 염소 이온 총량(kg/m³), R_m 은 혼화제 중의 알카리 총량(kg/m³)을 의미함.

에 발주할 경우 또는 시공자가 현장에서 베이스 콘크리트 제조 및 유동화시킬 경우 시험 방법, 판정 기준 등의 원칙에는 큰 차이가 없다. 단, 시험 시기 및 횟수에 있어 굳지 않은 상태의 슬럼프 및 공기량 등의 품질 검사 시기는 베이스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요령과 같다.

5. 결언

본고에서는 유동화 콘크리트의 배합 설계, 제조 및 시공, 품질 관리 및 검사에 대하여 고찰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유동화 콘크리트의 배합 설계는 일반적인 콘크리트의 배합 설계와 다른 점이 없으나 유동화를 위한 베이스 콘크리트를 제조 한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유동화 콘크리트의 경우 유동화 후의 품질을 목표로 베이스 콘크리트를 제조하여야 하는데, 배합 사항에서 특히 주의할 것은 된비빔의 베이스 콘크리트 잔끌재율이 유동화 후에는 낮은 잔끌재율로 되어짐에 따라 재료 분리 및 공극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베이스 콘크리트의 잔끌재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유동화 콘크리트의 제조 및 시공은 일반 콘크리트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단, 현장에서 유동화하는 경우 에지테이터 트럭을 이용하므로 이에 따른 소음의 대책 마련과 유동화 콘크리트의 특성상 심한 슬럼프 로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한편, 높은 유동성으로 인하여 거푸집의 측압이 증대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요구된다.

3) 유동화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 및 검사에서 유동화제의 첨가 및 교반과 관련한 부분에서의 주의가 필요하며, 기타의 품질 관리 및 검사 등은 일반 콘크리트와 대동소이하다. ■

참고문헌

1. 한천구, "유동화 콘크리트의 최적배합 및 특성", 청주대 산업과학연구소 컨소시엄 세미나, 1996.
2. 韓千求와 6인, "流動化 콘크리트의 現場 適用에 관한 實驗的 研究", 한국콘크리트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8, No.2, 1996.
3. 大韓土木學會, 「流動化 콘크리트 施工指針(案) 同解說」, 1991.
4.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유동화 콘크리트의 실용화방안 연구」, 1995.

5. 日本建築學會 材料施工委員會 第一分科會・流動化コンクリート研究小委會, 「流動化コンクリートの技術の現況」, 1979. 11.
6. 日本建築學會, 「コンクリートの調合設計指針・同解説」, 1994.
7. 岸谷ほか, “流動化コンクリートに関するレオロジー的研究”, 日本建築學會論文集, 第312號, 1982.
8. 小川鑑, 「流動化コンクリート工法」, 理工圖書, 1980, p. 4, pp. 25~31.
9. 鈴木ほか, “フルイドコンクリートの施工に関する實驗的研究”, 1~3報, 日本建築學會大會 學術講演梗概集, 1976.
10. 小島ほか, “流動化コンクリートの流動化效果に関する實驗研究”, 日本建築學會大會 學術講演梗概集, 1981. 9.
11. 日本建築學會, 「流動化コンクリート施工指針案・同解説」, 1983.
12. 和美ほか, “現場で減水剤を混入したコンクリートの特性”, 鹿島建設技術研究所 年報, 1976.
13. 嵩・池田ほか, “各種流動化剤を用いたコンクリートのワーカビリティについて”, 第32回 セメント技術大會, 1978.
14. 岸谷ほか, “流動化コンクリートのレオロジーとスラブロス(その3)”, 日本建築學會大會 學術講演梗概集, 1981. 9.
15. 澤田ほか, “流動化コンクリートを用いたサイロ工事”, 建築の技術施工, 1980.
16. 友澤・福士, “流動化コンクリート”, コンクリート工學, Vol.18, No.7, 1980.
17. 福士, “流動化コンクリートによる施工性改善”, 建築雜誌, 1978. 1.
18. 嵩ほか, “流動化コンクリートの諸性質”, 第1回 コンクリート工學年次大會講論文集, 1979.
19. 十河ほか, “低發熱型高爐セメントお用いた流動化コンクリートの性質について”, 土木學會, 1981. 10.

경제 용어 해설

• 데이 트레이딩(day trading)

: 주식과 채권의 하루 가격움직임을 이용해서 매매차익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증시호황을 타고 최근 미국에서 투자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시세흐름을 계속 지켜보다가 주가 움직임이 빠른 주식을 포착, 매입한 뒤 단기 차익을 챙기고 빠져 나오는 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주로 인터넷 거래시스템을 이용한다. 불과 하루만에 이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의 등락 폭이 두드러질 때 눈에 띈다. 주식의 경우 수도일은 매수분, 매각분과 함께 같은 날이 되지만, 가격차이분 만큼 결제하는 차금결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매수대금(신용거래의 경우는 위탁증거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소수종목을 대상으로 초단기 매매를 통해 수익을 노리기 때문에 기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주가의 움직임만을 분석대상으로 한다는 게 특징이다.

• 패러다임 경영(paradigm management)

: 종전의 기업경영에서 승패가 엇갈리던 기업경영의 패러다임을 원원(win-win)의 패러다임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새로운 기업 경영관이다. 패러다임 경영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물론 대기업간에도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패러다임 경영에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경쟁보다는 계열화, 영역차별화를 통해 서로 공존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전자·컴퓨터·자동차 분야에서도 경쟁사간 기술과 특허의 공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